



04
APRIL
2011

유외숙 소장의 섹스클리닉

유부녀의 성 욕구가 궁금하다?

성생활에서 여성이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욕에 대한 정당성과 허용이 전제되어야

유부녀에 대해서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종종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유부녀는 실제 그녀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는 매력 없는 존재로 치부되지만, 어떤 미혼남에게는 무한한 성적 매력을 풍기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면 오랜 시간 성적 결핍을 겪어온 유부녀들은 성적 유혹에 비이성적으로 대처하기가 쉽다. 정말로 유부녀(혹은 이혼녀)들은 성적 욕망이 고조되어 있는 반면 실제 생활에서는 억눌려 있는 존재인지, 그렇다면 그녀들의 성적 욕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사례들과 함께 유외숙 소장의 조언을 들어본다.

사례 1 유부녀 혹은 이혼녀에게만 관심이 있다

결혼 안한 또래 혹은 20대 아가씨들과는 연애하는 재미가 없다. 요구사항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이래저래 까다로운 점이 많다. 언제부턴가 섹스할 때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섹스를 무슨 은혜를 베풀듯 하며 섹스한 후 막 대하는 태도들도 싫다. 유부녀들은 그런 점이 없어서 좋다. 무엇보다 섹스를 한 사이라는 이유로 들러붙는 태도가 없어서 좋고 뒷끝도 없고 마음이 편하다. 섹스를 할 때도 남편 혹은 전 상대와 관계하면서 자신의 성 취향을 잘 알고 스스로 액션을 취해서인지 쉽게 달아오르고 만족도도 높은 거 같다. 그렇다고 오로지 엔조이를 위해서만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 섹스 뿐 아니라 편안한 대화 상대로서도 유부녀가 편하다. 친구들은 내 취향이 이상하다고, 미혼인 여자를 만나서 제대로 연애를 해 보라고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다. 현재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와 만나고 있는데 주위의 반대만 없다면 결혼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다. (30대 초반 남성 미혼)

사례 2 섹스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 황당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이혼한 지 3년 됐고 초등학교생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혼 후 오랜 구직생활 끝에 최근 직장을 얻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작은 회사지만 정직원으로 월급도 받고 동료들과 사이도 좋고, 다행히도 친정어머니가 가까이 살고 있어서 아이도 맡아주고 만족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취직을 주선해 준 남자로부터 유혹을 받은 후 혼란스럽다. 그 남자는 평소 친하지는 않지만 잘 알고 지내는 후배의 남편이다. 입사한 후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인사차 만났는데 저녁과 술을 마시게 됐고 갑자기 친한 행동을 취해 적잖이 당황했다. 그래도 그 때는 그냥 남자들의 버릇이려니 했는데 두번 째 만나고 나서는 정식으로 나와 만나고 싶다고 했다. 후배의 남편이라고 내가 자르면 되는 거지만 문제는 내가 그 남자가 싫지 않고 흔들린다는 것이다. 아직 깊은 관계를 갖진 않았지만 이러다 사고칠 걱정이 많이 들고 고민이다. 후배에게도 죄책감이 든다. (40대 초반 이혼녀)

위의 사례들은 남녀의 성적 욕망이 같이 얽혀 있다. 이 사례가 주는 느낌은 아주 복잡하다. 누군가는 자유로워 보여서 부러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어떻게 저리도? 하면서 불편 해 할 것이다. 우리 모두 때로는 일탈을 꿈꾸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기에 때로는 절제로, 때로는 아쉽지만 포기를 해가며 미래를 준비한다. 결국은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다. 사례 1의 남성은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포기했나? 자기중심적이고 욕구 지향적인 선택뿐이다. 단순한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닌 삶의 방식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유부녀를 선호하는 이유가 경제적 심리적 부담도 없고, 노력없이도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니 포기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쉬운 선택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가장 큰 손실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만족이 쉽지 않다는 것이며 만족이 없기에 기대조차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또래는 재미가 없으니 앞으로도 더 쉽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으면서 점점 더 자신을 소모품으로 만든다면??? 자신의 감각적인 만족만을 위해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만이라도 챙기도록 하자.

사례1과 사례 2에서 드러난 여성들의 성적 욕구와 위험한 행태들은 결혼 안에서의 성문제의 한 단면을 보게 한다. 여성의 성적 발달을 잘 나타내는 해외 조크 하나 -10대 때는 성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가, 20대에는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30대에는 사랑하게 되었고, 40대에는 즐겼고, 50대에는 가끔 돈을 지불하기도 했었고, 60대는 기도의 목록에 넣기도 했었다는 어느 노인의 성이야기는 여성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여성도 성적욕구가 있고 경험에 의해 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쉽게 포기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부부성치료 장면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비슷하다. 성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꽤만 경험하고 싶어요. 나를 배려해 주세요. 존중해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믿어주세요. 자유롭고 싶어요. 부담은 정말 싫어요. 재발 무시하거나 초라하게 만들지는 마

세요. 차라리 내 욕구를 포기하겠어요! 당신에게 실망스런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여전히 괜찮은 여자이고 싶어요. 여전히 괜찮은 남자이고 싶어요! 라고.... 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상이 필요한 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뭐가 그리 다르겠는가? 다만 욕구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를 뿐이며 만약 그 잣대의 오류로 남녀 모두에게 손실이 있다면 우선 할 것은 잣대의 점검이다.

일탈(혹은 외도)에서 경험하는 성적 만족이 결혼안보다 더 크다면 이것은 그들의 사랑의 크기나 테크닉이나 리비도(libido)의 량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여성들이 성관계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태도 변화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참여자일 때와 한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관찰자로 남아 있을 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상대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살피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섹스에 몰두하기가 어렵고, 만족은 없게 된다. 즉 섹스는 함께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지 해주는 것을 받는 것은 많은 한계들이 있다. 부부 성생활에서 여성이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 욕구에 대한 정당성과 허용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사례1의 여성은 성관계의 주체자이며 이 주체자 덕분에 남성은 너무나 편하고 만족스럽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는 약간의 찬탄에도 참 취약해 지는 것 같다. 사례2의 여성은 사소한 몸짓이나 말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서둘러 성적 유혹을 하는 후배남편의 태도를 관심이나 사랑이라고 착각할 만큼 결핍이 많은 사람이다. 배가 너무 고프면 그 음식이 위생적인지, 영양가가 있는지, 맛이 있는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무엇이건 채우고 본다. 배가 아프고 나서야 그 조급함을 후회한다. 성적 욕구나 정서적인 욕구도 결핍이 과도하면 선택에 무리가 따른다. 죄책감이나 수치심, 사회적 인 비난 같은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얻는 만족은 결국은 자존감을 훼손시키게 된다. 이는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다른 결핍을 만드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게 된다. 최소한 알면서 자신을 훼손시키는 일은 멈춰야 할 것이다.

상담21 성건강연구소 유 외 속 소장 (www.sangdam21.com)